

CBCA와 RM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평가*

김 현 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분석 도구로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CBCA와 RM을 통해 성폭력 실제 피해아동과 상상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CBCA와 RM을 이용하여 두 집단의 진술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실제 피해아동 35명(남=2명, 여=33명, M=10.11, SD=1.56)과 상상 피해아동 9명(여=9명, M=13)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피해집단이 상상 피해집단 보다 CBCA와 RM 모두에서 더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둘째, 실제 피해 집단의 진술은 CBCA에서 1번(논리적 구성), 3번(세부정보의 양), 6번(대화의 재현), 8번(일상적이지 않은 세부 정보), 11번(외적으로 관련된 사실과의 연합), 12번(주관적인 경험), 14번(자발적인 수정 혹은 첨가), 15번(기억 부족 시인) 등의 총8개 준거에서 더 유의미한 점수를 획득하였다. CBCA는 총19개 준거 중 8개 준거가 진실 진술과 상상 진술을 구분하였다. 셋째, RM에서는 모든 준거가 실제 피해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넷째, 실제 피해아동의 진술이 상상 피해 아동의 진술보다 일관되고 생생한 진술이 가능하며, 사건에 대한 세부정보가 더 풍부하고, 사건 당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재현이 가능하며, 사건 당시 분노와 혐오, 슬픔, 두려움 등 피해아동의 정서와 감정이 더 많이 수반되었으며, 시각적·청각적인 감각적 정보가 더 많이 진술에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실제 피해아동 진술에서 CBCA와 RM의 준거가 더 많이 발견되었고, RM에서 CBCA보다 실제 진술과 상상 진술을 구분하는 개별 준거가 더 많이 나타났다.

주요어 : 아동성폭력, 준거기반내용분석, 사실성 평가, 아동진술신빙성평가(SVA)

* 본 논문은 본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 교신저자 : 김현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E-mail : counsellor89@naver.com

아동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 피해가 평생에 걸쳐 지속되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우리나라의 아동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발생 건수를 산출한 결과, 2005년 9.13명에서 2008년 15.8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안상수, 변화순, 문미경, 장미혜, 강은영, 2009). 더욱이 최근에 언론을 통해 접하는 김길태, 김수철 사건에서 처럼 아동 성폭력 사건이 납치와 살해 등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흉악해지고 있으며, 13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도 여아들이 성폭력의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실상 많은 아동 성폭력 사건은 비폭력적이고, 신체적인 강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신체적인 외상의 증거가 드물고, 성학대의 다른 증거를 찾기 힘든 경우도 많다. 가해자는 아동에게 비밀을 요구하고 성폭력은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되기가 힘들며, 가해자는 자신이 유죄임이 거의 증명되었을 때조차도 자백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된다(Ruby & Brigham, 1997; Strömwall, Bengtsson, Leander, & Granhag, 2004; Undeutsch, 1989).

피해아동진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 진술의 신빙성은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한 의심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있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동이 성폭력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지는 않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어린 아동들은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하여 거짓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으며, 어른과의 성적 관계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Ruby & Brigham, 1997).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이 신뢰할만한 것이어서 증거로 채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사자나 부모 등 외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배척해야 할 것 인지는 성폭력피해를 입증하는 사법절차 내에서 매우 핵심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도구와 기법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수정, 김현정, 2008; Jaffe, Wilson, & Sas, 1987).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술분석 도구인 CBCA와 RM을 이용하여 첫째, 실제 피해아동의 진술과 상상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한다. 둘째, 두 집단의 진술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술분석 및 평가도구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이하 CBCA)

CBCA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의 기억에 기초를 둔 진술은 상상이나 추정된 사건의 진술과는 내용과 신뢰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을 기초로 한다(Rogers & Brodie, 2004; Ruby & Brigham, 1997). 즉 CBCA는 진실한 진술과 거짓 진술은 인지적 측면과 동기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인지적 측면에서 진술이 진실할 경우 CBCA의 여러 준거가 나타나는 반면, 거짓 진술은 매우 구조화되어 있고 짜여져 있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동기적 측면에서는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술이 진실한 것으로 보여 져야 하기 때문에 인상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일

반적으로 거짓말과 관련된 행동은 하지 않게 되는데 CBCA에서 이를 판단하는 준거들은 자발적 수정, 기억의 부족 등이 이에 해당된다.

CBCA가 거짓 진술과 진짜 진술을 구분하는데 유용한지를 검증하는 실증 연구들의 결과는 대체로 CBCA가 아동의 진실한 진술과 거짓 진술을 구분할 수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CBCA에 관한 현장연구를 실시한 Esplin, Boychuk, & Raskin(1988)등의 연구에서는 진술을 요소에 따라 평가했을 때 진술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면 0점을 받았고, 제시되었으면 1점, 강력하게 제시되었으면 2점을 받았다. 이 연구는 3세에서 15세의 피해 아동 40명에 대한 진술을 분석한 것으로서, CBCA총점은 0점에서 38점까지 분포되었는데, 진실하게 진술한 아동이 평균 24.8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진술을 한 아동은 평균 3.6점을 받았다. 더욱이 성폭력이 확인된 집단과 성폭력이 의심스러운 집단 간의 점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의심스러운 집단에서는 최고점수가 10점이었고 확인된 집단의 최저점수는 16점이었다. 또한 CBCA의 19개 준거 중 15개의 준거가 성폭력이 확인된 집단에서 나타났다. Lamb 등(1997)의 연구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분류된 진술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건으로 분류된 진술보다 CBCA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사용된 14개 준거 중 6개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Boychuck(1991)은 성폭력피해를 받고한 4세-16세 75명의 진술에 대하여 CBCA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찰 조사한 면담내용을 피해가 확실한 집단과 의심스러운 집단으로 구분한 후 세 명의 평가자가 CBCA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피해가 확실한 집단의 진술에서 준

거 1번부터 8번, 11번, 12번, 14번, 19번이 나타났다. 그리고 CBCA의 14개 준거만을 사용한 Craig(1995)는 용의자가 자백을 했거나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동의 진술을 확실한 것으로, 아동이 진술을 철회하거나 용의자가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였을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분류하여 어떠한 준거들이 각 집단별로 나타나는가를 연구한 결과, 대체로 CBCA의 준거가 피해가 확실한 아동의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Vrij(2000)는 4-12세 성폭력 피해 아동 98명의 진술을 분석하였다. Vrij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학적 정보, 목격자 진술, 용의자 자백, 물리적/신체적 증거, 그리고 폴리그래프 등 5가지 증거를 활용하여 성폭력 발생여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음’부터 ‘가능성이 매우 낮음’까지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진술에 대한 분석은 3명의 평가자가 14개의 준거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CBCA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14개의 준거 중 6개의 준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Steller와 Köhnken(1989)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고찰하고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실험연구를 실행하였다. 실제 성폭력 사건 처럼 아동이 직접 관련되고 부정적인 정서적 각성이 일어나고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낄만한 98명의 14학년 아동에게 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주사를 맞는 것, 수술을 받는 것, 혈액 채취를 하는 것, 치과 치료를 받는 것, 수술이 필요한 사고로 고통을 당하는 것, 다른 아동에게 맞는 것, 개나 동물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 등의 이야기이다. 총 194개의 이야기를 세 명의 평가자가 분석한 결과 11개의 준거(1번

과 3번-12번)가 진실한 진술에 더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CBCA 준거들이 194개의 이야기 중 127개가 의료적 절차나 성폭력과 같이 아동의 몸에 직접 일어나는 이야기들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국내 연구에서 이미선(2004)은 3-13세 성폭력피해아동 82명의 진술조서를 분석하였다. 의학적 증거, 용의자 자백, 목격자 증거, 물리적/신체적 증거와 거짓말 탐지 결과를 분류의 증거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을 경험한 것이 확실한 집단의 CBCA의 점수가 의심스러운 집단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두 집단 간에 5개의 준거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동의 진술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아니라 경찰관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이다. 진술조서는 아동의 구두 진술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 의해 문답의 형태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진술이 생생하게 담기기보다는 종래의 조서 양식에 맞추어 아동의 진술이 정리되기 때문에 아동의 진술 그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경찰관에 의해 재구성된 진술조서 상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CBCA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데 유용함을 지지하는 선행연구(Boychuck, 1991; Esplin et al., 1988; Lamb et al., 1997; Steller, 1988)들도 있지만, 또 다른 연구(Ruby & Brigham, 1992; Köhnken & Wegener, 1982; Yuille, 1988)은 CBCA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유용하다고 하였다.

CBCA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연령이다. 대체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CBCA 점수도 높아진다. Vrij 등(2002)은 10-15세 나이 많은 아동과 대학생 간의 진술을 비교했을 때 연령이 많을수록 CBCA점수도 상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BCA와 연령의 효과를 연구한 Lamber-Winkelman 등(1992)은 성폭력을 받고한 103명 아동의 진술을 확실, 다소 확실, 불확실의 세 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CBCA를 이용하여 나이 많은 아동들의 진술은 성공적으로 분류하였으나 나이 어린 아동의 진술은 성공적으로 분류하지 못하였다. 이후 Lamber-Winkelman 등(1992)은 나이 어린 아동에 대하여 CBCA가 적절한지를 연구하였는데, 2-12세 아동의 진술을 대상으로 CBCA를 실시한 결과 나이가 적을수록 CBCA준거들도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Lamb 등(1997)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CBCA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4세부터 1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CBCA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CBCA가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CBCA는 아동의 직접적인 구두 진술에 대한 분석이기에 인지적, 언어적 측면에서 나이 많은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발달이 덜 된 나이 어린 아동의 진술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CBCA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사건의 친숙도가 논의되고 있다. Pezdek 등(2004)은 사건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친숙한 사건일수록 CBCA 점수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토하였는데, 114명의 아동을 친숙한 사건과 낯선 사건으로 경험을 하게 하여 진술을 분석한 결과 친숙한 사건에서 CBCA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Steller와 Köhnken(1989)의 연구에서는 친구와 싸운다거나 하는 일상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한 진술과 거짓 진술이 모두 유사한 CBCA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CBCA가 친숙한 사건에서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보다는 비친숙한 사건에

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성폭력이 아동에게 친숙하지 않은 사건임을 감안한다면, 성폭력을 받고한 아동의 진술에서 CBCA점수가 높게 나타난다면 그 아동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Steller와 Köhnken(1989)은 CBCA의 진실과 거짓 구분의 유용성에 대한 또 다른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CBCA에 대해 훈련받은 학생들과 훈련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진실과 거짓 이야기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훈련받은 학생들은 진실한 이야기를 진실로 구분하는 비율이 78%, 거짓 이야기를 거짓으로 구분하는 비율이 62%이었던 반면에, 훈련받지 않은 학생들은 각각 68%, 47%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Yuille(1988)은 캐나다에서 49명의 1-3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실과 거짓 이야기를 들려준 후 이틀 뒤 SVA(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절차에 의거하여 두 명의 연구자가 아동에 대한 면담 및 CBCA를 실시하였다. 진실 이야기는 91%, 거짓 이야기는 74% 정확률을 나타냈다. 이 연구결과는 CBCA의 유용성을 지지하지만, CBCA가 진실을 거짓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거짓을 진실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Ruby & Brigham, 1997). Ruby와 Brigham(1997)은 CBCA에 대해 교육을 받은 64명과 교육받지 않은 50명의 참가자에게 12개의 각본(6개의 진짜 이야기, 6개의 거짓 이야기)을 제시한 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훈련의 효과는 진실을 구분하는 데에서 나타났는데, 훈련받은 참가자들은 진실한 이야기의 75%를 진실한 이야기로 구분해내었던 반면에, 훈련받지 않은 참가자들은 59%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훈련받은 참가자와 훈련받

지 못한 참가자 모두 거짓 이야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35%의 정확률을 나타내는 취약성을 보였다. Yuille (1988), Ruby와 Brigham(1997)의 연구는 CBCA가 오류부정보다는 오류 긍정의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거짓을 진실로 분류하는 오류를 낳는 것이다.

CBCA의 일부 준거만이 진실과 거짓 진술을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거나, 또는 거짓을 진실로 구분하는 오류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CBCA의 발달 및 목적에 상응한다. CBCA는 성폭력을 받고하는 아동의 진술은 진실이라는 믿음을 지지하고, 따라서 진실한 진술에서는 CBCA준거가 많이 나타난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CBCA가 아동진술의 진실을 확증하려는 진실편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CBCA는 거짓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진실을 확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CBCA가 거짓을 구분해내는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기 위해서, CBCA충점이 낮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류긍정의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 보다 많은 개념적, 실증적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Ruby & Brigham, 1997). 이러한 연유에서 Vrij(2000)은 CBCA와 RM을 동시에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다.

사실성 모니터링(Reality Monitoring; 이하 RM)

최근 RM은 CBCA를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Sporer, 1997; Strömwall, 2004; Vrij, 2004). CBCA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적 토대가 부족한 점과 진실준거에 부합하려는 편향이 나타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

다. 반면에 RM은 기억, 지각과정 등의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는데 실제 경험은 지각 과정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감각 정보가 포함되지만 상상 혹은 허구의 이야기는 기억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추론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RM은 진술의 진위여부를 구분한 거짓 준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CBCA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기억해낸다. 하나는 지각적 과정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외부 원천이고, 다른 하나는 추론, 상상 및 생각과 같은 내적 원천이다. 외부 원천에서 연유한 기억인지 혹은 내부 원천에서 연유한 기억인지를 구분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사실성 모니터링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감각과 생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일반적으로 감각과 생각은 다른 속성을 갖고 있기에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들에게 의해 구분될 수 있으며, 지각이 상상보다 더 강하고 생생하다는 것이다(Johnson & Raye, 1981). RM의 기본 전제는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과 상상한 기억의 차이점은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더 분명하고 생생하다는 것이다.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은 지각적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더 많은 지각정보, 즉 시각적으로 세부적인 정보, 소리, 냄새, 맛, 신체적인 감각들을 더 많이 포함하지만, 이와 달리 상상의 기억은 생각이나 추론과 같은 인지적 과정을 더 많이 거치게 되는 것이다(Johnson & Raye, 1981; Kapardis, 2002; McNally, 2005).

RM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들은 실제로 경험을 한 사건들에 대한 진술들은 상상된 사건에 대한 진술보다 더 많은 지각적, 공간적, 그리

고 시간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Strömwall et al., 2004; Vrij, 2000). Suengas와 Johnson(1988)은 실제 경험한 사건과 상상한 사건의 기억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RM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제 회상에 참여한 피실험자에게 커피를 마신다거나 사진을 보는 등의 실제 경험을 회상하게 하고, 상상 회상에 참여한 피실험자에게는 상황을 묘사하는 각본을 들려주었다. 그 결과 실제 사건을 경험한 집단의 기억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기억보다 기억의 생생함, 감각적·맥락적 정보, 사건 동안의 감정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RM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가 Morgan과 Craig(1987)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10명의 대학생에게 우선 직업명(변호사, 예술가, 성직자)과 그 특성의 리스트를 읽게 하고, 그 다음 직업별로 어떤 상황이나 장면에서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문장, 예를 들어 변호사 조지는 차를 쇼핑하고 있다. 예술가 조지는 차를 쇼핑하고 있다. 성직자 조지는 차를 쇼핑하고 있다 등이 제시된다. 그리고 실험참가자에게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그 문장에 세부정보를 첨가하거나 더 정교하게 묘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실험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상상 속에 기존의 직업에 대한 전형화된 특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상은 과도하게 전형화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출처로부터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기존의 전형화된 정보를 자신의 상상 속에 통합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어떠한 진술이 전형화된 정보를 많이 포함할수록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Strömwall 등(2004)의 연구에서 RM은 CBCA

보다 진실한 진술과 거짓된 진술을 구분하는데 더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10-13세 87명의 아동들에게 실제로 경험했던 일과 상상했던 일을 한번 진술했을 때와 반복해서 진술했을 때 CBCA와 RM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RM은 실제로 사건을 한번 경험했던 아동과 상상한 일을 한번 경험했던 아동을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건을 반복해서 경험했던 아동과 반복해서 상상했던 아동을 구분해내었다. 이에 반해 CBCA는 진실과 상상을 구분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자발적 수정(준거 14)과 자기 진술에 대한 의심 제기(준거 16)의 두 준거만이 진실과 상상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을 뿐이다. Vrij(2005)는 RM이 진실을 탐지하는 데 71%, 거짓을 탐지하는 데 74%의 정확률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외 Höfer, Akehurst, & Metzger(1996) 등의 연구에서는 정확률이 61%, Sporer(1997)의 연구에서는 정확률이 76%로 나타났다.

RM은 CBCA와 달리 거짓말 준거(준거 8)를 가지고 있는데, 상상의 경험은 내부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감각적 정보보다는 생각이나 추론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술에 8번 준거(인지적 추론)가 더 많이 나타날수록 그 진술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에서 준거 8에 대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Johnson과 Raye(1988)는 상상된 사건들이 경험한 사건보다 더 많은 인지적 작동을 포함하였다는 것을 항상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양미정(2008)의 연구에서는 진술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지적 추론(준거 8)의 점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해득실이 낮은 상황에서는 거짓 진술에서 인지적 추론의

준거 점수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진실 진술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해득실이 높은 상황에서는 거짓 진술과 진실 진술 간의 인지적 추론의 준거에 있어 점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Johnson과 Raye(1988)는 지각된 사건과 상상된 사건의 기억의 양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동기의 성폭력 피해를 성인이 되어 회상할 때 지각과 상상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McNally, Clancy, Barret & Parker, 2005). 이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보다는 최근 성인 기억들에서 더 큰 차이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사건 직후의 기억에 대해서 RM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인다(Kapardis, 2002). 그러나 Sporer(1997)은 사건 직후보다는 짧은 지연 후 진실과 거짓 반응들 간에 더 큰 차이를 발견하였다. 또한 아동의 기억에 대한 RM을 실시했을 때 성인만큼 진실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 짓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eci & Bruck, 1995). Kapardis(2002)는 RM이 아동의 진실보다는 성인의 진술을 분석하는데 더 유용하며, 특히 오래 전보다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McDaniel, Lyle, Butler와 Dornburg(2008)의 연구결과, 나이 많은 성인과 젊은 성인 간에 상상한 일에 대해 반복해서 생각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두 집단 모두 상상한 일을 실제로 하었다고 답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반복된 상상은 실제처럼 감각적인 세부정보와 인지적 작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진술자의 연령, 사건발생일로부터 진술하게 되는 시간, 사건 경험 횟수 등의 요인이 준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은 분석할 때 아동의 연령은 물론

사건 발생시점부터 받고되기 까지 경과된 시간, 부모나 조사자 등에 의한 면담횟수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방 법

연구가설

첫째, 성폭력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아동 피해자의 CBCA총점이 상상으로 피해경험을 지어낸 아동의 CBCA총점보다 높을 것이다.

둘째, 성폭력 사건을 실제 경험한 아동의 진술과 상상으로 피해경험을 지어낸 아동의 진술을 유의미하게 구분해주는 CBCA의 개별 준거들이 있을 것이다.

셋째, 성폭력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아동 피해자의 RM총점이 상상으로 피해경험을 지어낸 아동의 RM총점보다 높을 것이다.

넷째, 성폭력 사건을 실제 경험한 아동의 진술과 상상으로 피해경험을 지어낸 아동의 진술을 유의미하게 구분해주는 RM의 개별 준거들이 있을 것이다.

연구설계

연구대상

실제 피해 아동의 진술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8-13세 35명의 진술이 분석되었다. 평균 연령은 10.11세, 표준편차 1.56이다. 아동의 성별은 여자아동이 33명(94.3%) 남자아동 2명(5.7%)이다.

상상으로 피해경험을 진술한 아동들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13세 여자아동 9명이다. 아동의 인지발달단계의 특성에 기초하

여 8-13세 아동이 면담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상의 피해경험 집단의 진술과 비교하였다.

측정도구

실제 피해아동의 진술과 상상 피해아동의 진술 모두에 진술분석 기법인 CBCA와 RM을 실시하였다.

연구절차

실제 성폭력 피해아동과 상상의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을 하였다.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상상 진술을 할 실험에서는 13세 여학생 9명에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아동 성폭력 사건을 극화한 비디오를 10분 가량 시청하게 한 후 다음날 면담에서 실제로 자신이 피해를 겪은 것처럼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아동들의 진술을 촉진하기 위해 면담 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아동에게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가능한 많은 내용을 상상하여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¹⁾ 아동들에 대한 면담은 인지면담과 CBCA분석방법을 훈련받은 전문가 3명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면담은 30분에서 6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자에게는 면담 대상자인 아동들이 성폭력 피해를 받고한 아동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치료를 목적으로 상담소를 찾

1) 13세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13세 이후부터 아동의 발달단계의 특성상 추상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므로 영상물과 더불어 기존의 지식을 통해 이야기를 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험 후 아동들에게 본 실험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제시된 영상자료는 실제 성폭력 피해를 극화한 것이라는 점도 알려주었으며, 성폭력 예방차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은 사례들이라고 설명하여 면담자들이 실험의 취지나 목적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던 첫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결 과

CBCA와 집단간 진술분석 결과

CBCA총점과 집단간 차이

실제피해 아동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총 35명 중 강간 5명(14.2%), 강간미수 1명(2.9%), 강제추행 29명(82.9%)으로 나타났다. 실험에 참여한 9명의 아동 중 8명은 강제추행, 1명은 강간의 피해유형을 상상하여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집단과 상상 피해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CBCA를 적용하여 각 집단의 진술을 분석하고 자료화하여 총점의 평균을 비교하고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1. 실제피해 집단과 상상피해 집단간 CBCA 총점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실제피해	35	18.80	4.21	25.116*
상상피해	9	10.44	5.38	
전체	44			

*p<.05

표 1과 같이, 실제 피해집단의 진술이 상상 피해집단의 진술보다 총점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 42)=25.116, p<.05$). 본 연구에서 ‘성폭력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아동 피해자의 CBCA총점이 상상으로 피해경험을 지어낸 아동의 CBCA총점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설정했

CBCA 준거별 진술분석 결과

CBCA의 어떠한 개별 준거가 실제 피해 집단과 상상의 피해 집단을 유의하게 구분해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2와 같이, 1번(논리적 구성), 3번(세부정보의 양), 6번(대화재현), 8번(일상적이지 않은 세부 정보), 11번(외적으로 관련된 사실과의 연합), 12번(주관적인 경험), 14번(자발적 수정이나 첨가), 15번(기억부족 시인), 16번(자신의 진술에 대한 의심 제기) 등의 총9개 준거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중 16번 준거는 상상집단이 실제집단보다 총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CBCA는 전체 19개 준거 중 8개 준거가 진실 진술과 상상 진술을 구분하였다. 실제 피해아동 집단과 상상 피해아동 집단을 구분해주는 준거들이 발견됨으로써 두 번째 가설 ‘성폭력 사건을 실제 경험한 아동의 진술과 상상으로 피해경험을 지어낸 아동의 진술을 유의미하게 구분해주는 CBCA의 개별준거들이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RM과 집단간 진술분석 결과

RM총점과 집단간 차이

성폭력 피해를 실제로 경험하여 진술하는 집단과 상상으로 경험을 지어내어 진술하는 집단 간에 RM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각 집단의 진술을 분석하고 자료화하여 총점의 평균을 비교하고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3의 결과에서 보듯이, 실제 피해를 경험한 집단의 진술이 상상으로 피해경험을 지어

표 2. 실제피해 집단과 상상피해 집단간 CBCA 개별준거

CBCA준거	집단		F
	실제	상상	
1. 논리적 구성	1.91(.28)	1.11(.78)	25.416***
2. 구조화되지 않은 진술	1.06(.83)	.67(.70)	1.644
3. 세부정보의 양	1.83(.45)	.67(.707)	36.990***
4. 맥락상의 깊이	1.80(.53)	1.44(.527)	3.215
5. 상호작용	1.43(.73)	1.11(.601)	1.412
6. 대화의 재현	1.40(.81)	.67(.70)	6.125*
7. 예기치 않은 복잡한 상황	.89(.86)	.56(.72)	1.101
8.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 정보	1.34(.87)	.44(.52)	8.634**
9. 세부 정보 과잉	.89(.93)	.56(.72)	.971
10. 이해하지 못하나 정확히 보고된 세부정보	.46(.78)	.56(.52)	.127
11. 외적으로 관련된 사실과의 연합	1.09(.91)	.33(.70)	5.198*
12. 주관적인 경험	1.66(.59)	.11(.33)	56.260***
13. 가해자 정신상태에 대한 추정	.46(.70)	.56(.52)	.154
14. 자발적인 수정이나 첨가	.77(.94)	.11(.33)	4.221*
15. 기억부족 시인	1.17(.85)	.33(.50)	7.831**
16. 자신의 진술에 대한 의심 제기	.06(.23)	.89(.60)	43.566***
17. 자기 비난	.00(.00)	.00(.00)	.00
18. 가해자에 대한 용서	.23(.59)	.11(.33)	.318
19. 범죄의 전형적인 특징 진술	.35(.76)	.89(.78)	3.619

*p<.05, **p<.01, ***p<.001

표 3. 실제 피해 집단과 상상 피해 집단간 RM 총점

집단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F
실제피해	35	13.03	2.33	41.555***
상상피해	9	7.00	3.12	
전체	44	11.80	3.48	

***p<.001

낸 집단의 진술보다 총점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성폭력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아동 피해자의 RM총점이 상상으로 피해경험을 지어낸 아동의 RM총점보다 높을 것이다’는 세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RM 준거별 진술분석 결과

어떠한 RM 준거가 실제 피해 집단과 상상 피해 집단 간의 진술의 차이를 구분해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RM 각 준거별로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표 4와 같이 모든 준거에서 실제 피해아동 집단과 상상 피해아동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상상으로 피해경험을 지어낸 아동들보다 RM의 각 준거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네 번째 가설 ‘성폭력 사건을 실제 경험한 아동의 진술과 상상으로 피해경험을 지어

표 4. 집단간 RM 개별준거

RM준거	집단		F
	실제	상상	
1. 명료성	1.80(.53)	.89(.60)	19.986***
2. 지각적 정보	1.26(.74)	.67(.50)	5.068*
3. 공간적 정보	1.89(.32)	1.22(.44)	25.962***
4. 시간적 정보	1.80(.40)	.89(.78)	23.797***
5. 이야기의 재구성	1.83(.45)	1.00(.70)	18.815***
6. 정서와 감정	1.57(.65)	1.00(.70)	7.198**
7. 사실성	1.86(.35)	1.00(.50)	39.291***
8. 인지적 추론	1.31(.78)	.56(.72)	6.718*

*p<.05, **p<.01, ***p<.001

표 5. 실제 피해 집단의 사건묘사

범주	진술내용	빈도
사건 발생의 맥락 묘사 (시간적, 공간적 정보 등)	“4학년 때 TV보고 있는데 아빠가 가슴을 만지는 거예요.”(사례 1, 만 10세)	6
	“공중 화장실 데려가서 이상한 짓 시켰어요.”(사례 2, 만 11세)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혼자 컴퓨터 하고 있는데 OO가 찾아왔어요.”(사례 3, 만 11세)	
	“OO가 집으로 불렀어요.”(사례 8, 만 11세)	
	“아저씨가 방에서 음악캠프 보고 있는데 옷을 벗기고 만졌어요.”(사례 9, 만 11세) “누워있는데 손을 바지로 넣었어요.”(사례 10, 만 12세)	
지각적 정보	“OO방송 보고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OO가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질 때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사례 1, 만 11세)	5
	“머리가 짧고 빠죽빠죽 나오고. 여드름 있고.”(사례 2, 만 11세)	
	“주방에서 점심에 먹을 밥을 하고 계셨는데...동생이 밖에서 누나 불렀어요.”(사례 8, 만 11세)	
	“음악캠프에서 OO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있었어요.”(사례 9, 만 11세) “동생이 하지마 하지마 하는 거 들었어요.”(사례 10, 만 12세)	
가해자의 행위	“가슴 만지고 하지마 해도 계속 만지고.”(사례 1, 만 11세)	6
	“변태 짓 시켰어요. 저 바지 벗기고.”(사례 2, 만 11세)	
	“가슴을 만지고...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사례 7, 만 11세)	
	“아침 때 점심때 불러서 들어갔는데 내 가슴을 만지고 뽀뽀하고...(중략) 너 예뻐서 그러는 거라고 하고.”(사례 8, 만 11세)	
	“가만있으라고 하면서 거길 만졌어요.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사례 9, 만 11세) “가슴도 만지고 여기 아래도 만졌어요.”(사례 10, 만 12세)	

낸 아동의 진술을 유의미하게 구분해주는 RM의 개별준거들이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실제 피해 아동의 진술특성

CBCA와 RM은 사건에 대한 내용적 요소와 사건 동안 아동의 정서적 반응이 진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이에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을 사건의 구성요소에 대한 인지적 측면과 사건 당시 아동이 겪었던 정서적 반응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실제 진술의 인지적 특성

성폭력 피해경험을 진술한 실제 집단의 진술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성폭력이 발생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정보 및 가해자의 말과 행동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실제 피해를 겪은 아동들은 시각적 정보 이외에도 청각적 정보(사례 9, 10) 및 “쓰다듬는 것 같다”는 감각적 정보(사례 2) 진술하였다.

실제 진술의 정서적 특성

정서란 특정한 내적, 외적 상태에 의해서 생성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현성용 외, 2008). 성폭력과 같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 피해자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캐롤리자드(1977)는 기쁨, 흥미/흥분, 놀람, 슬픔, 분노, 혐오, 경멸, 두려움, 창피함, 죄책감 등의 10가지 기본 정서를 제안하였다. 실제 피해아동들이 성폭력 사건을 겪었던 당시에 어떠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었는지 본 연구자가 직접 면담한 아동들의 진술(10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6과 같이, 실제 피해아동의 진술에서 놀람, 슬픔, 두려움, 분노, 혐오 등의 정서적 반응이 나타났다.

상상 피해 아동의 진술특성

상상으로 지어낸 진술의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면 향후 조사과정에서 아동들을 조사할 때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야 하는지 시사점을 발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6. 실제 피해 집단의 정서반응

정서	진술내용	빈도
놀람	“당황했어요.”(사례 4, 만 11세)	2
	“너무 놀랐어요.”(사례 7, 만 11세)	
슬픔	“울고 싶고...”(사례 2, 만 11세)	1
두려움	“무섭고 겁나고 도망치고 싶고...”(사례 2, 만 11세)	3
	“또 올까봐 무서웠어요.”(사례 7, 만 11세))	
	“무서웠어요 또 할까봐...”(사례 10, 만 7세)	
분노	“화도 나고...아빠가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요.”(사례 4, 만 11세)	1
혐오	“변태 같았어요.”(사례 42, 만 11세)	2
	“기분 나빠서 소리 지르고 싶었다.”(사례 8, 만 11세)	

상상 진술의 인지적 특성

표 7과 같이 대체로 상상집단의 아동들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가해자의 유인방법 등 사건 발생의 맥락을 이해하게 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두 명(사례 7, 사례 8)의 아동은 사건 발생에 대한 진술을 부분적으로 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을 때 회피하는 등 사건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하지 못하는 아동들도 있었다.

한편,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신체적 감각과 같은 지각적 정보가 상상 집단의 진술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RM의 개별

표 7. 상상 피해 집단의 사건묘사

범주	진술내용	빈도
사건 발생의 맥락 묘사 (시간적, 공간적 정보 등)	“초등학교 4학년 특기적성 수업을 마치고 가던 중이었어요.”(사례 1)	7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만나려고 택시 탔는데요.”(사례 2)	
	“학교 끝나고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도와달라고 해서 따라 갔는데 강제로 차에 태웠어요.”(사례 3)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4시쯤이었는데요.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손목을 잡고 좋은 거 보여준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으스스한 곳으로 끌고 갔어요.”(사례 5)	
	“초등학교 1학년 때 주말에 가족끼리 고깃집을 갔는데 그때 친하게 지내던 아는 아저씨네 식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으로 갔어요.”(사례 6)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사례 7)	
	“학교 뒤에 우유창고가 있는데...(중략) 차쪽으로 저를 잡아 당겼어요.”(사례 8)	
	“그 아저씨한테서 이상한 짙은 향수 냄새 같은 것이 났어요. 꽃냄방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금귀걸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사례 1)	
지각적 정보	“그 아저씨 송곳니 반이 깨져 있는 게 보였고, 안전이라고 쓰여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사례 2)	5
	“담배냄새가 났어요. 손이 두껍고 컸어요.”(사례 4)	
	“회색 양복 입고 있었어요. 대개 말쑥한 아저씨였어요.”(사례 5)	
	“정확한 차는 생각 나지 않지만 검은색 차였어요.”(사례 8)	
가해자의 행위	“아저씨가 문틈에 뭐가 끼었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려고 차로 갔어요.”(사례 3)	5
	“아저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끌고 갔어요.”(사례 4)	
	“신기한 거 보여줄게. 남자 그거에서 유유가 나온다고 말하면서 손목 잡고 있다가 바지 내렸는데...(중략)...아저씨가 이 일은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사례 5)	
	“아저씨가 밥 다 먹은 후에 계산대 옆에 서있는데 옆에 와서 이쁘다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엉덩이도 만졌어요.”(사례 6)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는 옆집 오빠인데 위에서 껴안았어요.”(사례 7)	
	“어떤 아줌마가 저기 앞 쪽까지만 같이 걸어가자고 하길래 그쪽이 집가는 길 이어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사례 8)	

표 8. 상상 집단의 정서적 반응

정서	진술내용	빈도
놀람	“매우 놀랐다.”(사례 4)	2
	“너무 놀라서 바로 움직이지 못했다.”(사례 5)	
두려움	“너무 무서웠다.”(사례 2)	2
	“기분이 이상하고 무서웠다.”(사례 6)	
혐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나쁘다.” (사례 1)	2
	“그 오빠가 껴안는데 너무 싫어서 발버둥 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사례 7)	

준거 중 실제와 상상 혹은 상상을 구분해주는 유력한 준거이다. 9명 중 7명의 아동이 ‘지각 정보’준거에서 1점을 받았고, 2명은 0점을 받았다. 7명의 아동이 진술한 지각정보는 시각적 정보가 대다수였다.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꽃남방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금귀걸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사례 1), “그 아저씨 송곳니 반이 깨져 있는 게 보였고, 안전이라고 쓰여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사례 2), “회색 양복 입고 있었구요. 대개 말쑥한 아저씨였어요.”(사례 5), “정확한 차는 생각나지 않지만 검은색 차였어요.”(사례 8) 등의 진술이 이에 해당한다. 9명 중 2명의 아동은 냄새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아저씨한테서 이상한 짙은 향수 냄새 같은 것이 났어요.”(사례 1), “담배냄새가 났어요.”(사례 4) 등의 진술이 나타났다. 그러나 소리, 맛, 신체적 감각 등의 정보는 진술에 나타나지 않았다.

상상 진술의 정서적 특성

상상 피해아동들이 성폭력 사건을 겪었던 당시에 어떠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8과 같이, 상상 피해아동의 진술에서 놀람, 두려움, 혐오 등의 정서적 반응이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CBCA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CBCA에서 실제 피해 집단의 진술이 1번(논리적 구성), 3번(세부정보의 양), 6번(대화의 재현), 8번(일상적이지 않은 세부 정보), 11번(외적으로 관련된 사실과의 연합), 12번(주관적인 경험), 14번(자발적 수정이나 첨가), 15번(기억 부족 시인) 등의 총 8개 준거에서 더 유의미한 점수를 획득하였다. 16번 준거는 상상 집단이 실제 집단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 외 상상 집단에서 더 유의하게 나타나거나 두 집단에서 발견되지 않은 준거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준거들이 과연 아동 진술의 진위여부를 구분하는 적절한 준거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실제 집단이 상상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준거들은 2번(구조화되지 않은 진술), 4번(맥락상의 깊이), 18번(가해자에 대한 용서)이다. 준거 2와 관련하여, 실제 성폭력을 경험한 성인은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을 진술할 때 당황하여 구조화되지 않고 비일관된 방식으로 진

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Winkel, Vrij, Koppelaar, & Van der Steen, 1991). 그런데 본 논문에서 분석된 사례들은 기존의 수사관행에서 사용되는 면담기법과는 달리, 면담자의 일정한 기법에 의거하여 진행이 되었다. 우선 아동과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피해아동에게 암시와 유도질문을 하지 않고 가능한 아동의 자유진술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인지면담기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피해경험을 진술하는 데 심리적, 정서적으로 갖게 되는 불안, 당혹감, 수치심 등이 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점이 아동의 진술을 보다 구조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준거 4번(맥락상의 깊이)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풍부하게 나타나는가를 평가하는 준거로서, 선행연구(고은영, 2008; 윤여훈, 2008)에서는 4번 준거가 진실집단과 거짓 집단을 구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피해 집단이 상상 피해 집단보다 평균점수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시간이나 장소 등 상황적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이 준거에서 실제 피해 아동과 상상 피해 아동 간에 진술에 커다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상황적 묘사는 상상으로 진술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피해아동의 진술분석 시 사건 자체에 대한 상황적 설명을 해석할 때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BCA의 전제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준거 18번(가해자에 대한 용서)이 실제 집단이 상상 집단보다 점수는 높았으나 유의미하게 구분하지는 못하였다.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 예컨대 친부, 남자친구 등 가까운 아는 사람

일 경우에 아동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갖게 된다(채규만, 2001). 따라서 이 준거가 피해 아동의 진술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피해아동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용서의 양가감정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했는가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더욱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상상 피해 집단이 실제 피해아동 집단보다 더 유의미한 점수를 획득한 준거는 16번(자기의 진술에 대한 의심 제기)이다. 일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진술에 의심을 제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동은 성인만큼 인상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기에 상상 집단에서 자신의 진술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인정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고은영 2008; 윤여훈, 2008)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술의심의 준거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적절한 준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상 집단이 실제 집단보다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준거들도 있었는데, 13번(가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추정), 19번(범죄의 전형적인 특징 진술)이 해당된다. Landry와 Brigham(1992)의 연구에서는 CBCA의 가설과는 달리 13번 준거가 거짓 진술을 하는 집단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 성인의 심리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동이 가해자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을 추론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3번 준거가 진술에 나타날 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3번 준거가 나이 어린 아동의 진술을 구분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번(범죄의 전형적인 특징 진술) 준거에서 상상 피해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상상 피해 집단의 아동들에게 성폭력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성폭력 사건을 상상하도록 하였는데, 상상 피해 집단의 아동들이 비디오 및 기존의 성교육이나 TV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아동성폭력 경험을 충분히 상상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면담 시 아동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묘사가 어떠한 출처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가늠해볼 필요가 있겠다.

실제 피해아동과 상상 피해아동의 진술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은 준거는 17번(자기비난)이다. 성폭력 발생의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거나 저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등을 나타내는 준거이다. 피해아동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거나 나빠서 학대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의 자기비난은 학대하는 사람으로부터 혹은 피해대 사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강화된다(Frieze, Hymer, & Greenberg 1987; Ratican, 1992). 본 연구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은 보호자에게 피해받고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거나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기관을 방문한 아동들이었다. 따라서 피해받고 당시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자기를 비난할 부정적 강화보다는 심리

적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자기비난이 진술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가족, 친구, 이웃, 경찰 등으로 부터 받는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피해자의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가 더 빨리 회복되는(Frieze et al., 1987) 반면에, 발고의 지연은 아동의 심리적 후유증을 장기화한다(Yurchesyn, Keith, & Renner, 1992). 또한 국내의 선행연구(고은영 2008; 윤여훈, 2008)에서도 자기비난 준거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비난의 준거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적절한 준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RM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RM에서는 모든 준거가 실제 피해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연구결과, 실제 피해아동의 진술이 상상 피해아동의 진술보다 일관되고 생생한 진술(준거 1)과 사실적인 묘사(준거 7)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Höfer 등(1996)의 연구에서 자신의 실제 경험에 대한 평가가 상상한 것보다 더 사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사건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포함한 세부정보(준거 3, 4)가 더 풍부하였다. 실제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진술이 더 많은 공간적 정보(양미정, 2008; Strömwall et al, 2004; Vrij, 2000)와 시간정보(Strömwall et al, 2004; Vrij, 2000; Granhag, Strömwall, & Olsson, 2001)를 포함한다는 RM의 전제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그러나 상상 집단의 진술에서도 사건 발생

의 맥락을 이해하게 하는 시간적, 공간적 정보, 가해자의 행위 및 가해자 관련한 특성들이 많이 등장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성폭력예방교육이나 TV 등 미디어를 통해 아동 성폭력의 특성을 알고 있었기에 아동들이 기존의 정보나 지식을 통해 아동성폭력에 관한 상상 진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CBCA 19번 준거는 전형적인 범죄 특징을 진술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이 준거에서 상상 집단이 실제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Morgan과 Craig(1987)는 사람들이 상상과 자신이 직접 관찰한 외부 사건을 항상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기존에 습득된 전형화된 정보를 자신의 상상 속에 통합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시에 아동의 진술이 기존의 지식이나 정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출처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RM의 전제는 실제 경험이 상상의 경험보다 더 많은 지각적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실제 피해 아동이 상상 피해 아동보다 더 많은 지각적 정보를 진술에 포함하고 있었다. 상상 집단의 아동이 지각정보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9명 중 7명의 아동이 ‘지각정보’준거에서 1점을 받았고, 2명은 0점을 받았다. 7명의 아동이 진술한 지각정보는 시각적 정보가 대다수였다.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꽃남방을 입고 금귀걸이 같은 것을 하고 있었다.”, “아저씨 손이 두껍고 컸어요.”, “정확한 차는 생각나지 않지만 검은색 차였어요.”와 같은 진술이 이에 해당한다. 9명

중 2명의 아동은 냄새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아저씨한테서 이상한 향수 냄새 같은 것이 났어요.”, “담배냄새가 났어요.” 등의 진술이 나타났다. 반면에, 소리, 맛, 신체적 감각 등의 정보는 진술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각적 정보에 있어 이러한 차이는 시각은 자신의 경험 수준에서 지어내기가 용이하지만 상대적으로 맛이나 신체적 감각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현실성 있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한 지각적 정보는 상상에 의해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RM은 CBCA와 달리 거짓 지표(준거 8)도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준거 8이 진술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실제로 피해를 경험한 아동보다 상상으로 경험을 지어낸 아동들이 생각이나 추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작동은 실제 정보에 대한 회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관련된다. 사람들이 특정 시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말하라고 요구받았을 때 경험하지 않고 상상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 특정한 일에 대하여 묘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짓진술을 할 때 더 많이 인지적 추론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준거 8(인지적 추론)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각기 상이하므로 준거 8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준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아동의 진술특성에 관한 논의

실제 피해아동과 상상피해아동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 가해자의 유인방법 등 사건 발생

의 맥락을 이해하게 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상상 피해아동 집단 중에서 두 명(사례 7, 사례 8)의 아동은 사건의 발생에 대한 진술을 부분적으로 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을 때 회피하는 등 사건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하지 못하였다.

사건에 대한 정서반응은 상상 피해아동 집단보다 실제 피해아동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정서는 사회적 자극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좋은 감정을 유발시키는 사회적 자극들과 나쁜 감정을 유발시키는 사회적 자극들을 구분한다(윤가현 등, 2005). 정서의 핵심은 의식적인 수준에서 경험되는 주관적인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정서와 기억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정서적 사건일 경우가 중립적인 사건에 비해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한다는 결과(이홍철, 장윤희, 1996)와 반대로 오히려 더 적은 내용을 기억한다(Christianson & Loftus, 1991)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연구는 법정에서 목격자 기억에 따른 진술을 얼마만큼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관련되기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서를 수반하는 사건이 항상 기억증진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항상 기억 손상을 일으킨다고 단순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범죄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결정적인 사건 정보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Yuille과 Cutshall(1986)은 강도와 상점주인 간에 있었던 실제 총격전을 본 목격자 13명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직후와 5-6개월 후의 기억을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건 직후나 시간이 경과된 후나 기억의 세부 사항이나 정확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일반적으로 기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망각이 이루어지나 정서가 수반된 사건에서는 시간이 경과되어도 보존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성폭력은 정신적 외상 수준의 스트레스라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의 심각한 위협이나 상처가 될 수 있다. 위협적인 스트레스는 두려움, 공포,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윤가현 등, 2005). 따라서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겪은 아동이 상상한 아동보다 사건과 관련한 정서적 반응을 더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 론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은 서유럽 국가에서는 전문가의 진술분석이 실제 법정에서 전문가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Ruby & Brigham, 1997). 미국에서는 80년대부터 전문가 증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재판과정에서 아동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절차적 혁신이 있어왔다(Kovera, 1997; Warren, 2002). 국내에서는 아직 전문가에 의한 진술분석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경찰청에 의해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시행되고 있고,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2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하는 데 있어 의견조회에 결과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전문가의 진술분석 결과를 참조하고 있다. Jaffe 등(1987)은 법원이 아동성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더욱 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전문가는 아동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동과 법원의 상호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증언을 채택하는 것과 금지하는 입장이 대비되고 있으나, 전문가 증언을 채택하는 이점은 판사가 아동의 능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Haugaard, 1988). 수사기관과 달리 전문가는 아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분석이 가능하고, 또한 그러한 진술분석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아동 성폭력 재판에서 전문가 증언은 점차 보편적인 절차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진술분석을 통해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아동의 진술의 증명력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Schuller(1992)는 학대남편을 살해한 피학대 여성을 변호하기 위해 매맞는 여성 증후군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제공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 증언 시 유죄선고율이 증가함이 밝혀졌다(Kovera, 1997; Warren, 2002). 이수정(2009)의 연구에서도 전문가에 의한 진술분석이 제시되었을 때 판사들의 유죄확증에 대한 심증이 더 확실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술분석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양형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진술분석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판사들로 하여금 유죄확증의 심증을 굳히는 데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진술분석이 유죄 판단에는 도움이 되지만 양형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아동의 진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Jaffe et al, 1987). 일례로 아동피해자가 모의재판을

통해 재판절차에 익숙하게 하고, 낯선 법정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정에서의 효과적인 소통기술을 습득하고,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 모의재판 프로그램(mock trial rehearsal)의 주요한 목적은 아동이 법정에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인지하고 자신의 피해경험을 보다 정확히 진술하도록 돕는 데 있다. 또한 모의 재판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평가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증언하기 전에 전문가에 의해 아동이 거짓과 진실의 차이를 아는지, 기억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광범위한 검사(screening)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때는 사건과 무관한 중립적인 질문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Haugaard, 1988).

Yurchesyn(1992)은 성폭력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폭력에 대한 전통적인 신념도 바뀌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한다. 즉 폭력적이지 않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는 성폭력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에 나타나는 77%의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거나 무기로 위협을 당했을 경우이며, 심지어 아동이나 청소년이 가해자를 유혹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Yurchesyn, 1992).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폭력 피해 조사기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아동 성폭력은 비폭력적인 경우가 많고 발고의 지연으로 아동의 진술 이외에 물리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아동이 겪는 2차 피해로 인해 피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단계에 걸쳐 아동의 진술

을 정확히 확보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아동진술의 증거력을 확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Browne(1991)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발고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받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이러한 경로를 구축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보고자 실제 피해아동과 상상 피해아동의 진술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인지적 발달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아동의 평균연령보다 상상 피해아동의 평균연령이 높았기 때문에 상상 피해아동의 진술이 CBCA 및 RM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연구결과에서는 오히려 실제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CBCA와 RM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어린 아동이더라도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이 가능하고, 반면에 나이 많은 아동이라도 경험하지 않은 가상의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가능하더라도 그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에 대한 보다 명확한 논의를 위해서는 실제 피해아동과 상상 피해아동의 진술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경험연구들이 더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제 피해아동 집단과 상상 피해아동 집단의 연령이 동일하지 않았고 상상 피해아동 집단의 표본 수가 많지 않았던 등의 방법론적 한계가 향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완되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 도구의 적용과 활용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영 (2008).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녹화 영상자료에 대한 준거기반 내용분석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상수, 변화순, 문미경, 장미혜, 강은영 (2009). 여성·아동 안전지표체계 구축 및 개발, 여성부.
- 양미정 (2008). 진술자의 신분차이 및 이해득실 정도가 현실모니터링 척도 점수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여훈 (2008). 아동들의 가해·피해 진술에 대한 준거기반 내용분석의 타당성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 (2004). 성폭력 피해 아동진술에 대한 준거기반 내용분석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2009). 아동성폭력피해자 조사절차 예비 연구. 한국심리학회연차발표.
- 이수정, 김현정 (2008). 아동 성폭행 피해 조사 시 고려해야 할 요인. 아동과 청소년 인권. 대한범죄학. 105-137.
- 이흥철, 장윤희 (1996). 정서와 기억. 인지과학. 7(3). 61-80.
- 채규만 (2001). 성 피해 심리치료. 학지사.
- Boychuk, T. (1991).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of children's statements about sexual abuse: a field-based validation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Az.
- Browne, A. (1991). The victim's experience: pathways to disclosure. *Psychotherapy*, 28(1), 150-156.

- Ceci, S. J., & Bruck, M. (1995). The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A historical review and syn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3, 403-439.
- Christianson, S. A. & Loftus, E. F. (1991). Remembering emotional events: The fate of detailed information. *Cognition and Emotion*, 5(2), 81-108.
- Craig, R. A. (1995). Effects of interview behavior on children's statements of sexual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tah, Salt Lake City.
- Craig, R. A., Scheibe, R., Raskin, D. C. Kircher, J. C. & Dodd, D. H. (1999). Interviewer questions and content analysis of children's statements of sexual abus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3, 77-85.
- Esplin, P. W., Boychuk T., & Raskin, D. C. (1988). A field validity study of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of children's statements in sexual abuse case. Paper presented at the NATO Advanced Study Institute Credibility assessment in Maaraatea, Italy, June 1988.
- Faller, K. C. (1993). Child Sexual Abuse: Intervention and Treatment Issue. 노충래(역). 2003. 아동 성학대의 치료. 학지사.
- Frieze, I. H., Hymer, S., & Greenberg, M. S. (1987). Describing the crime victim: Psychological reactions to victimiza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8 (4), 299-315.
- Granhag, P. A. Strömwall, L. A., & Olsson, C. (2001). Fact or fiction? Adult' ability to assess children's veracity. Paper presented at the 11th European Conference on Psychology and Law, libson, Portugal.
- Haugaard, J. J. (1988). Judicial determination of children's competency to testify: Should it be abandoned?.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9(1), 102-107.
- Höfer, E., Akehurst, L., & Metzger, G. (1996). Reality monitoring: A Chance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CBCA?. Paper presented at the 6th European Conference on Psychology and Law, Sienna, Italy, August 1996.
- Jaffe, P., Wilson, S. K., & Sas, L. (1987). Court testimony of child sexual abuse victims: emerging issues in clinical assessments. *Canadian Psychology/ Psychologie Canadienne*, 28(3). 291-295.
- Johnson, M. K. & Raye, C. L. (1981). Reality monitoring. *Psychological Review*. 88(1), 67-85.
- Johnson, M. K., Foley, M. A., Suengas, A. G., & Raye, C. L. (1988). Phenomenal characteristics of memories for perceived and imagined autobiographical ev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7(4), 371- 376.
- Kapardis, A. (2002). *Psychology and La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öhnken, G. & Wegener, H. (1982). Credibility of witness statement: Experimental examination of selected reality criteria]. *Zeitschrift für Experimentelle und Angewandte Psychologie*, 29, 92-111.
- Kovera, M. B. (1997). Does expert psychological testimony inform or Influence juror decision making?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1), 178-191.
- Lamb, M. E., Sternberg K., Esplin P. W., Jershkowitz I., Orbach Y., & Hovav M. (1997). Criterion-based content analysis: A

- field validation study. *Child Abuse and Neglect*, 21, 255-264.
- Lamber-Winkelman, F., Buffing, F., & Van der Zaden, A. P. (1992). Statement validity analysis in child sexual abuse cases: A field study. Poster session Oxford, England.
- Landry, K., & Brigham, J. C. (1992). The effect of training in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on the ability to detect deception in adults. *Law and Human Behavior*, 16, 663-675.
- McDaniel, M. A., Lyle, K. B., Butler, K. M., & Dornburg, C. C. (2008). Age-related deficits in reality monitoring of action memories. *Psychology and Aging*, 23(3), 646-656.
- McNally, R. J., Clancy S. A., Barret, H. M., & Parker H. A. (2005). Reality monitoring in adults reporting repressed, recovered, or continuous memories of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1), 147-152.
- Morgan, P. S. & Craig A. A. (1987). When reality monitoring fails: the role of imagination in stereotype mainten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4), 653-662.
- Pezdek, K. (2004). Detecting deception in children: Event familiarity affects criterion-based content analysis rating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9(1), 119-126.
- Ratican, K. (1992). Sexual abuse survivors: Identifying symptoms and special treatment conside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 33-71.
- Rogers, M. L. & Brodie, L. (2004). Detecting deception in children: event family affects criterion-based content analysis rating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9(1), 120.
- Ruby, C. L. & Brigham, J. C. (1997). The usefulness of the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technique in distinguishing between truthful and fabricated allega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3(4), 705-737.
- Schuller, R. A. (1992). The impact of battered woman syndrome evidence on jury decision processes. *Law and Human Behavior*, 16, 597-620.
- Sporer, S. L. (1997). The less travelled road to truth: verbal cues in deception detection in accounts of fabricated and self-experienced even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 373-397.
- Steller, M. (1988). The development of statement reality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NATO Advanced Study Institute on credibility assessment in Maratea, Italy, June 1988.
- Steller, M. & Köhnken, G. (1989). 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In D. C. Raskin (Ed.), *Psychological methods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evidence*. New York, NJ: Springer-Verlag.
- Strömwall, L. A., Bengtsson, L., Leander, L., & Granhag, P. A. (2004). Assessing children's statements: The impact of a repeated experience on CBCA and RM rating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 653-668.
- Suengas, A. G. & Johnson, M. K. (1988). Qualitative effects of rehearsal on memories for perceived and imagined complex ev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7(4), 377-389.
- Undeutsch, U. (1982). Statement reality analysis.

- In A. Trankell(ed.), *Reconstructing the past: The Role of Psychologists in Criminal Trials*. Stockholm: P. A. Norsted and Sons.
- Undeutsch, U. (1984). Courtroom evaluation of eyewitness testimony.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33, 51-67.
- Undeutsch, U. (1989). The development of statement reality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NATO Advanced Study Institute on credibility assessment in Maratea, Italy, June 1988.
- Vrij, A. (2000). *Detecting lies and deceit*: John Wiley & Sons, Ltd. 113-153.
- Vrij, A., Akehurst, L., Soukara, S., & Bull, R. (2002). Will the truth come out? The effect of deception, age, status, coaching, and social skill on CBCA scores. *Law and Human Behavior*, 26, 261-283.
- Vrij, A. (2004). Let me inform you how to tell a convincing story: CBCA and reality monitoring scores as a function of age, coaching, and decept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6(2), 113-126.
- Vrij, A. (2005).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A Qualitative review of the first 37 studie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1(1), 3-41.
- Warren, A. R. (2002). The believability of children and their interviewers' hearsay testimony: When less is mor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5), 846-857.
- Winkel, F. W., Vrij, A., Koppelaar, L., & Van der Steen, J. (1991). Reducing secondary victimization risks and skilled police intervention: Enhancing the equality of police rape victim encounters through training programmes.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7, 2-11.
- Yuille, J. C. (1988). The systematic assessment of children's testimony. *Canadian psychology/ Psychologie Canadienne*, 29(3), 247-263.
- Yurchesyn, K. A., Keith, A., & Renner, E. (1992). Contrasting perspectives on the nature of sexual assault provided by a service for sexual assault victims and by the law cour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4(1), 71-85.

1 차원고접수 : 2010. 1. 21.

심사통과접수 : 2010. 9. 06.

최종원고접수 : 2010. 9. 21.

A Study on judging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s of sexually abused children

Hyun Jung Kim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judge the credibility and the veracity of the sexually abused children's statements through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CBCA) and Reality Monitoring(RM). This study experimented with the imagined statements to compare with the true statements. The true statements received significantly higher total CBCA and RM scores and eight individual CBCA criteria scores and all individual RM criteria scores than the imagined statements. Compare to the imagined statements, the true statements had more vivid and detailed information, descriptions of interactions, and reproduction of conversation with offender. The true statements have more children's emotion and feelings, such as rage, hatred, sadness, and fear than the imagined. Moreover, the true statements had more perceptual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imagined statements had spatial information and temporal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sexual abuse. However the imagined statements did not have perceptual informations based on the real experience.

Key words : Child Sexual Abuse, CBCA, Reality Monitoring, SVA

부 록

1. CBCA의 준거

I. 일반적인 특징

1. 논리적 구성(Logical Structure)
2. 구조화되지 않은 진술(Unstructured Production)
3. 세부정보의 양(Quantity of Details)

II. 구체적인 내용

4. 맥락상의 깊이(Contextual Embedding)
5. 상호작용(Descriptions of Interactions)
6. 대화의 재현(Reproduction of Conversation)
7. 예기치 않았던 복잡한 상황(Unexpected Complications during the Incident)

III. 내용의 특성

8.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 정보(Unusual Details)
9. 세부 정보 과잉(Superfluous Details)
10. 이해는 하지 못하나 정확히 보고된 세부정보(Accurately Reported Details Misunderstood)
11. 외적으로 관련된 사실과의 연합(Related External Associations)
12. 주관적인 경험(Subjective Mental State)
13. 가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추정(Attribution of Perpetrator's Mental State)

IV. 동기관련 내용

14. 자발적인 수정이나 첨가(Spontaneous Corrections)
15. 기억 부족 시인(Admitting Lack of Memory)
16. 자신의 진술에 대한 의심 제기(Raising Doubts About One's Own Testimony)
17. 자기비난(Self Deprecation)
18. 가해자 대한 용서(Pardoning the Perpetrator)

V. 범죄요소

19. 범죄의 전형적인 특징 진술(Details Characteristic of Offence)
-

출처: Vrij(2000)

2. RM의 준거

1. 명료성(clarity)
 2. 지각적 정보(perceptual information)
 3. 공간적 정보(spatial information)
 4. 시간적 정보(temporal information)
 5. 이야기의 재구성(reconstructability of the story)
 6. 정서와 감정(emotions and feelings)
 7. 사실성(realism)
 8. 인지적 추론(cognitive operation)
-

출처: Sporer(1997)